

전주 대변혁 위한 시민 소통 이어가

우범기 전주시장, 평화1동 주민 신바람 복지 혜택 위한 의견 청취·시정 운영방향 공유

‘전주의 도약! 대변혁!’을 이루기 위한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들과의 소통은 오늘도 이어졌다.

20일 평화사회 복지관을 찾은 우 시장은 평화1동 주민, 도·시의원, 유관 기관 대표, 자생단체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 위한 청취와 해답을 보이며, 평화1동 주민들의 신바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높은 강도의 소통을 이었다.

이어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시정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여기에 주민 소통 시간을 통해 평화1동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행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평화 지하보도, 노후지역 방치’ 위한 개선방안, 노후화된 인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

승배기로 인도 정비, 평화로 가로수 정비’ 등 생활에 필요한 직접적인 의견들이 모아졌다.

전주시는 이날 주민들의 소통에 따른 여러 사항들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강한 경제를 토대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대변혁의 꿈을 꾸고,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제안해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전주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거주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록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20일 평화사회 복지관을 찾아 평화1동 주민, 도·시의원, 유관 기관 대표, 자생단체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인천국제공항서 전주 글로벌 홍보영상 송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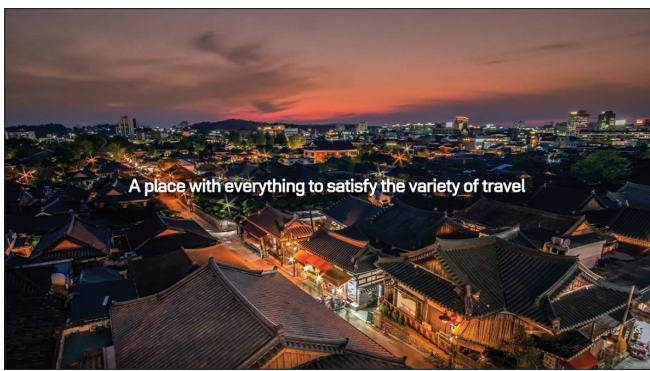
3월 14일까지 홍보... ‘관광거점도시 전주’ 브랜드 인지도 강화·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대

관광거점도시인 전주시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세계인 대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열띤 홍보에 나섰다.

세계 공항 순위 1위를 12년 연속 유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국제선 기준 세계 5위(7057만명)의 여객처리실적을 자랑하는 많은 외국인이 찾는 곳이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인천국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내 전광판 3개소를 통해 전주 글로벌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세계인이 찾는 인천국제공항 전광판을 활용해 ‘전주 글로벌 홍보영상’을 소개하고 ‘전통문화도시, 역동적이면서도 즐길거리가 풍부한 도시’임을 알려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거점도시로 그 위상을 보여 세계인들



관광거점도시인 전주시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세계인 대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열띤 홍보에 나섰다.

의 발길이 찾아 들도록 홍보에 모든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는 세계에 전주를 알리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주요 박람회 참가를 통한 ‘전주 여행’ 홍보, 현지 여행사 팸투어 추진 및 타겟시장의 수요에 맞는 여행상품 개발, 외국인 관광객 유치시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브랜드 강화 및 인지도 향상, 국내·외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거점도시, 전주’ 비전에 맞춰 ‘전주의 맛과 멋’ 등 4가지 테마로 전주 글로벌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전주 글로벌 홍보영상은 지난해 ‘아리랑TV’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아시아 뉴스 채널 ‘채널 뉴스 아시아’에서 방송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명희 전주시 관광정책과장은 “인천국제공항은 전세계에 전주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매우 특별한 장소로서 최고의 효과를 보일 것이다. 이번 기회를 맞아 전주의 관광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3개 도서관서 수어교실 운영

전주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개선을 위해 전주시립도서관에서도 수어교실 운영이 이뤄진다.

지금까지 평화도서관에서 운영해오던 수어교실을 올해는 송천도서관과 (오는 3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오는 4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을 포함한 3개 도서관까지 운영을 확대했다기 때문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각도서관 일정에 맞춰 오는 21일부터 평화·송천도서관에, 오는 3월 15일부터 꽃심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 지원

전주시는 앞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반려견·반려묘의 중성화 수술비로 2000만 원 지원할 계획을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주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번식과 유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마련했으며, 수술 전 반려동물의 혈액 및 심장 사상충 감염

검사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전주시청 누리집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동물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ar1591@korea.kr)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민 구강건강관리 돕는다

시 보건소·치과의사회, 노인인지·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 협약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전주 치과의사회와 2023년 구강보건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취약계층인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진단 업무협약을 맺은 보건소와 치과의사회는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층 노인인지(틀니) 사업과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전개한다. 여기에 보건소는 올해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 모집 시 직접 신청 외에도 직접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검진에 나가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구강보건사업 대상자에게는 치과연계 전 치아 홈 메우기와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의 예방적 진료를 실시해 꼭 필요한 충치 치료 혜택(1인 최대 20만 원/△레진 △인레이 △크라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인지(틀니)사업에서는 의치(틀니) 장착 대상자 선정과 시술비를 지원하고, 사후관리 등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전주시치과의사회는 시술의 료기관 선정과 의치(틀니) 장착, 장착 후 사후관리 등을 맡게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 노인과 아동들의 치과 의료 부담을 덜어주고 치아관리가 취약한 주민들의 구강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전주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보건소는 또 치과의사회와 함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구강관리 서비스와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도

지난해 전주한옥마을 찾은 관광객 역대 최다

이동통신기록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수는 1129만4916명, 외국인 관광객은 1만5414명 집계됐다.

월별 관광객수는 10월 153만4043명, 11월 135만9688명으로 많은 수의 관광객을 보였고, 이에 시는 그동안 움츠렸던 관광수요가 국내관광을 중심으로 재개되며 보이는 결과로 분석을 내놨다. 시는 올해 1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

기 위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 많은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월 경기전 인근에 ‘여행자라운지’를 개소하고, 연말까지 태조로 초입에 ‘한옥마을 국제관광안내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그동안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싶은 여행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품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전주시는 총 4억6504만 원을 투입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사업’ 추진 계획을 알렸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가 있는 주택 거주자 또는 소유자로,

신청서와 현장 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거환경 개선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사업은 전주시 청소지원과(063-281-8456) 또는 관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